

- 본회 상담내용 분석결과 -

본회가 지난 상반기(1999년 1월 1일~1999년 6월 30일)동안 실시한 전화상담회 수는 총 1,128건으로 집계되었다. 상담은 146일간 실시되었으며 하루 평균 10회가 이루어졌다.

전화통화의 형태별로 실제상담, 전화끊음, 침묵, 어린이들, 기타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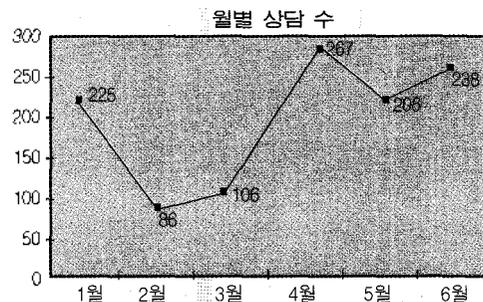
〈표 1〉 전화통화 형태

전화형태	상담회수	퍼센트(%)
실제상담	930	82.4%
전화끊음	120	10.6%
침묵	36	3.4%
어린이	12	1.1%
기타	30	2.6%
합계	1,128	100%

〈표 1〉에서 실제상담은 상담원과 내담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, 전화끊김은 망설임, 부끄러움으로 상담원과 연결 후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, 침묵은 상담자가 하는 말을 아무런 반응없이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경우, 기타는 협회에 에이즈에 관한 자료요청 전화이다. 이 중에서 실제상담 회수가 전화상담분석에 이용되어졌다.

1 월별 상담수

1월의 경우 TV공익캠페인(1999년 1월 5일~1999년 1월 19일)의 영향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담이용빈도가 높았다. 4월에는 새로이 '에이즈 정보센터'를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상담 홍보가 이루어진 결과 이용회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. 이와 더불어 캠페인 및 각종 교육사업의 결과로 점차 이용회수가 증가하고 있다.



2 연령 및 성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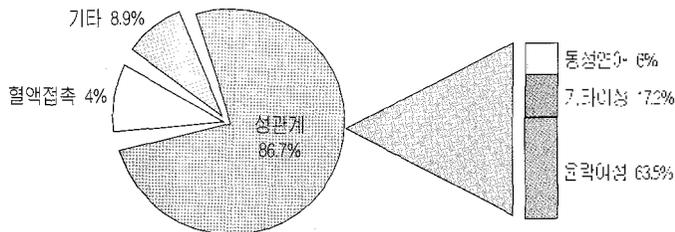
연령층 중에서 20대가 34%(317명)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, 26-30세 사이가 23.2%(216명)로 가장 활발하게 전화상담을 이용하였다.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20-30대(68.1%)가 에이즈감염위험행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. 가장 어린 통화자는 15세이며, 가장 나이가 많은 통화자는 69세이다.

〈표 2〉연령 및 성별 상담수

연령	여성	남성	전체	퍼센트(%)
11-20	11	29	40	4.2%
21-30	104	222	326	35.1%
31-40	81	227	308	33%
41-50	37	164	201	22%
51-60	0	35	35	5.8%
61이상	0	5	5	0.5%
비공개	3	12	15	1.3%
합계	236	694	930	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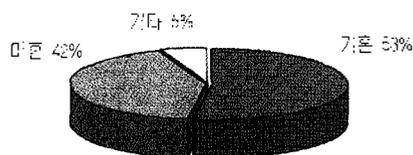
3 감염의심 원인

전체의 86.7%(807명)가 에이즈감염 위험행위가 성관계였으며, 그 대상은 윤락여성(63.5%), 기타여성(17.7%), 동성연애(6%) 순으로 나타났다. 그 이외의 감염의심 원인은 혈액접촉 4%(40명), 기타 8.9%(83명) 등이었으며 기타에는 피부접촉과 모기나 동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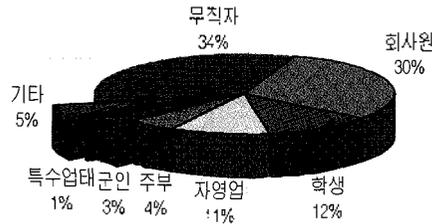
4 결혼여부

전체 전화상담(930명) 중에서 미혼 42%(370명), 기혼 53%(456명), 기타 5%(48명)이며, 기타에는 결혼유무를 밝히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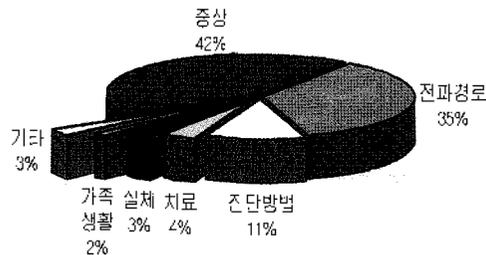
5. 직업

IMF 구제금융 하에서 무직자(310명, 33.3%)들과 회사원(280명, 30.1%)들이 에이즈감염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어떤 계층보다 이들에 대한 에이즈예방 교육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.



6. 문의내용

감염 후에 나타나는 증상(43%)과 전파경로(35%)가 729회(78%)를 차지하고 있으며 1회의 상담을 통하여 여러내용을 동시에 문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. 기타(25회, 3%)에는 에이즈 외에 다른 종류의 성병, 성고민 상담 등이 있었다.



결론

전화 상담을 집계한 결과 연령별로는 20대(35%), 30대(33%), 40대(22%), 직업별로는 무직자(33.3%), 회사원(30.1%), 학생(11.5%)이 가장 많은 문의를 해왔다. 문의내용은 증상(43%), 전파경로(35%), 진단방법(11%)이 대부분이었고 감염 의심 원인은 윤락여성(64%)이나, 기타여성(17%)과의 성접촉, 혈액(6%)에 노출됨 등이었다.

전화로 상담을 의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노출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었다. 에이즈예방 기초자료로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상담기록지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. 또 이를 위하여 상담자들이 효과적인 상담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전화상담 만으로는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정보센터에서의 면접상담과 연계하여 좀더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. **A**

신 남 현 / 본회 사업과 주임